

## 不正格(Casus Indefinitus)의 定立을 위하여

安 秉 禧 (建國大學校)

體言의 曲用을 認定하면, 國語는 屈折(語尾變化)로서 語幹屈折인 活用과 單語屈折인 曲用의 두 方式을 가지게 된다. 즉 曲用語幹은 獨立形式, 活用語幹은 拘束形式이다. 보통 體言이라 할 경우, 그것은 曲用語幹만을 指稱하는 것이다. 事實 體言은 曲用語尾없이도 다른 單語와 統合하여 統辭論的構成을 形成한다.

여기 曲用의 屈折表(Paradigm)에서 語尾를 가지지 않은 語幹의 處理問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흔히 基本形이라 다루고 있으나, 基本形의 文法的意味가 明確하게 規定되어 있지 못하다. 더욱 統合에 나타나는 體言은 반드시 어떤 資格, 곧 文法에서 말하는 格을 가지므로 基本形보다는 다른 用語가 要望된다.

G.J. Ramstedt는 일찌기 Nominative 라고 處理하고 있다 (A Korean Grammar. 1939, Helsinki p. 36.) 여기에는 altai 諸語의 主格이 曲用語尾를 缺하고 있음에 示唆된 바 있겠지만, 國語에서 曲用語幹이 그대로 主格에 나타남도 事實이다. 예, 어머니(가) 오셨다. 사람(이) 많다. etc. 그러나 屬格과 對格에도 曲用語幹은 그대로 나타난다. 예, 총무공(의) 사당, 어머니(의) 편지; 아이가 밥(을) 먹는다. 이 책(을) 보았니?, etc. 그러므로 간단히 主格으로 處理되지 않는다.

위의 主格, 屬格 및 對格에 나타난 曲用語幹을 曲用語尾의 脫落으로 說明하는 것도 한 方便이다. 그러나 脫落形과 脫落되지 않은 語形과의 差異가 明示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Ramstedt의 說明은 再吟味할 價値가 있다, 그는 曲用語尾 없는 語形을 Nominative 라 하고서, 우리가 主格語尾라고 부르는 「-이, -가」는 the special connection of subject to its predicate 를 指稱할 때 使用된다는 것이다(partive). *ibid.* 語源的인 考慮에서, 異形態에 不過한 現代語의 「-이, -가」를 各各 determinative particle, connecting particle 이라 한 것은 전혀 不當하지만, 格語尾를 缺한 一般主格에 상대하여 「-이, -가」는 特別한 主述關係를 表示한다고 한 것은 매우 卓見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 說明을 主格 뿐 아니라, 屬格과 對格의 경우에도 適用시켜 좋으리라고 믿는다. 즉 語尾로써 表示되는 屬格과 對格은 各其 格으로서 特別한 統合關係가 表示되는데 反하여 語尾없이 表示되는 屬格과 對格은 一般的인 統合關係가 表示된다. 다시 말하면 曲用語幹에 叙述語가 統合되면 主格, 體言이면 屬格, 他動詞면 對格이 表示되는데, 그때 該當 格語尾를 가지면 그 格은 強調되어 統合關係는 明

確해지는 것이다.

이와같이 統合만으로써 格이 表示되는 경우, 特別한 名稱이 必要하다. 이것을 不定格(Casus Indefinitus)이라 부르기를 提議하는 바이다.

不定格은 Altai 諸語에 다 나타나는데, 曲用語幹 만으로 主格과 對格(때로는 呼格)을 表示할 때를 指稱한다. (이것은 다음 諸書에 依據한다. : N. Poppe, Khalkha Mongolische Grammatik, Wiesbaden 1951, s.62-63; A von Gabain, Alttürkische Grammatik, Leipzig 1950. s.86 J. Benzing, Die Tungusischen Sprachen, Wiesbaden. 1955, s.79.) 特別히 語尾로써 表示되는 對格에 대하여 不定格이 對格을 表示할때는 精密하게 規定하지 않고 一般的이며 不正確한 對象을 다룰 경우라고 한다. 이것은 國語의 對格에도 通하는 것이다. 다만 國語는 Altai 諸語에 比較하여 널리 쓰일 따름이다.

이러한 事實은 國語와 文法構造가 類似한 日本語에서도 發見된다. 日本語의 主格과 對格은 語尾없이 表示될 수도 있고 語尾로써도 表示된다. 語尾로써 表示될 때, 主格과 對格은 各各 主語와 目的語를 強調한다고 한다(cf. Bloch, Studies in Colloquial Japanese II: Syntax.)

以上으로써 國語의 曲用語幹이 그대로 主·屬·對格을 表示할 경우, 不定格이라 함은 當然한 歸結이다. 格이 強調되는 主·屬·對格과 함께 不定格을 曲用의 屈折表에 定立시킬 것을, 우리는 提起하는 바이다. 그렇게 하여야만, 위에서 말한 一般的인 格表示와 그밖에도 빈번한 體言과 後置詞와의 統合을 效果的으로 記述할 수 있을 것이다.